



신라의 미타사상

신앙사료를 중심으로

Pure - Land Thoughts of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김영태 Yeong Tae Kim
출처 (Source)	불교학보 12 , 1975.11, 61-77(17 pages) BUL GYO HAK BO 12 , 1975.11, 61-77(1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78
APA Style	김영태 (1975). 신라의 미타사상. 불교학보, 12, 61-7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1/09/23 13: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의 彌陀思想

~信仰史料를 中心으로~

金 煥 泰

차 례

1. 彌陀信仰의 史實 (1) 各傳을 통해 본 信仰의 特徵
2. 阿彌陀佛과 關係經典 (2) 新羅 彌陀思想의 特殊性
3. 當時 彌陀信仰 思想의 特性

緒 言

新羅 佛敎人에 의하여 이루어진 彌陀淨土關係의 著述은 꽤 많은 편이었으나 現存하는 것은 겨우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三國遺事에는 新羅 때의 彌陀信仰을 알게 하는 資料(傳記·說話)가 적지않게 收錄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遺事에 수록되어 있는 彌陀信仰관계의 史實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新羅 佛敎에 있어서의 彌陀淨土信仰에 대한 思想을 어느 정도는 理解할 수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彌陀관계의 現存 著述에서 볼 수 있는 敎學的인 淨土思想面을 제외한 信仰思想面을 알아보기 위하여 遺事에서 볼 수 있는 彌陀信仰관계의 史實들을 모두 정리하여 좀더 구체적인 考察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물론 新羅 佛敎에 있어서의 彌陀信仰을 考察하기 위하여서는 당시의 敎學的인 研究도 併行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遺事에서 볼 수 있는 關係資料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彌陀信仰思想만을 考察해 볼 생각인 것이다.

그러한 意圖에서 이 小考에서는 우선 遺事所傳의 諸資料들을 摘出하여 그 대략을 보고, 다음에 彌陀關係經典 所說의 概要를 대충 살핀 뒤에, 마지막으로 新羅에 있어서의 彌陀信仰의 思想的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彌陀信仰의 史實

여기서 말하는 彌陀信仰의 史實이란 三國遺事に 보여지고 있는 彌陀信仰關係의 傳記

및 說話들을 가리키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史實들은 또한 新羅時代의 彌陀信仰思想을 考察하기 위한 基本資料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遺事에 있는 關係史實들을 대략 時代順으로 옮겨서 整理해 보려고 한다.

(1) 廣德·嚴莊의 西往

文武王代(661~681)의 沙門 廣德과 嚴莊은 매우 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들은 늘 “安養(極樂)에 먼저 가게 될 때에는 꼭 알리고 가도록 하자.”고 약속하였다. 廣德은 芬皇 西里에 隱居하여 蒲鞋를 業으로 하고 妻子와 함께 살았으며, 嚴莊은 南岳의 庵子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에 嚴莊의 窓 밖에서 “나는 이제 西往(西方 極樂世界에 往生)하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 오게.”라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문밖으로 나가 보니 구름 밖에 天樂聲이 들리며 光明이 따에 드리워 있었다. 이튿날 嚴莊이 廣德의 거처를 찾아가니 廣德이 죽었으므로, 廣德의 아내와 함께 장사를 지내고 나서 홀로 된 廣德 妻와 嚴莊은 同居하기로 하였다. 그날 밤 同寢할려는 嚴莊에게 그 아내는 “스님이 淨土를 求하는 것은 가히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일(求魚緣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고 하면서 동침을 거절하였으므로 嚴莊은 “廣德과는 함께 지냈으면서 어찌 나하고는 동침을 거절하는가?”하고 물으니, 그 아내는 “廣德스님과과는 10여년을 同居하였지만 하루 밤도 同寢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觸汚야 말이 됩니까. 그 분은 밤마다 端身正坐하여 一聲으로 阿彌陀佛號를 念하고 혹은 十六觀을 지었는데 觀이 무르익게 되면 明月이 門戶로 들어오며 그때 달빛 위에 올라앉아 跏趺하곤 하였읍니다. 精誠이 이와 같았으므로 어찌 往生하지 않았겠읍니까. 千里를 갈 사람은 一步에서부터 가히 알 수가 있는 법인데, 지금 스님(嚴莊)을 보니 東쪽은 몰라도 西方往生은 안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嚴莊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나와 元曉法師을 찾아가서 津要(方便)를 懇求하였으므로, 元曉는 鍾觀法을 만들어서 誘導하였다. 그로부터 嚴莊은 스스로 悔責하고 마음을 맑혀 一意修觀하여 西方往生을 하였다는 것이다.¹⁾

그리고 末尾에 廣德이 노래하였다는 대략 다음과 같은 뜻의 鄉歌 한 편이 붙어 있다.

“달님이시여, 西方의 無量壽佛前에 가지거든 誓願깊으신 부처님께 두손 모아 願往生 願往生 그리는(往生을 간절히 원하는) 이 있다고 말씀드려 주시오. 아아 이 몸을 버려두고 四十八大願이(無量壽佛의) 이루어지실까.”²⁾

1) 遺事 卷5 感通7, 廣德 嚴莊.

2) 이 鄉歌를 願往生歌라고 할 하는데 여기서는 直譯을 하지 않고 그 大意만을 옮겼다. 이 노래는 ‘德嘗有歌云’이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廣德의 노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崔南善編 三國遺事 등에 ‘十九應身之一德 嘗有歌云’이라고 句讀하였기 때문에 흔히들 이 노래를 廣德 妻의 것으로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德嘗有歌……’의 잘못이다. ‘19應身의 하나’라는 뜻으로 보나 이 ‘廣德 嚴莊’條에서의 德의 用例로 보아서 再論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2) 仁容寺의 彌陀道場

‘文虎王 法敏’條³⁾에 의하면, 太宗武烈王의 次子이며 文武王 弟인 金仁問이 唐帝에 被召되어 下獄되었을 때 新羅에서는 그의 無事歸還을 祈願하여 仁容寺를 세우고 觀音道場을 開設하였다가 仁問이 歸國도중 海上에서 죽으며 觀音道場을 고쳐서 彌陀道場으로 하였다는 것이다.⁴⁾ 그리고 이 彌陀道場이 高麗時代(撰者 一然 當時)까지 존속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3) 白月山の 彌陀現身成佛

遺事에서 引用하고 있는 ‘白月山兩聖成道記’⁵⁾에는 新羅의 彌勒과 彌陀가 現身成佛하였다는 說話를 전하고 있다. 여기서 彌陀에 관한 부분만을 대충 옮겨보기로 한다.

白月山 아래 大佛田 小佛田의 寺庵에서 자기 妻子를 거느리고, 產業을 經營하던 두 沙門이 身世의 無常을 깊이 깨닫고 無上道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深谷(白月山 無等谷)으로 들어가 修道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坦坦朴朴은 北嶺의 師子窟에 자리를 잡고 板屋(板房)을 만들어 살면서 彌陀佛을 禮念하였다. 修道한지 3년이 채 못된 聖德王 8년(景龍 3年 己酉·709) 4월 8일 저녁 무렵에, 나이 20세쯤 된 아릿다운 娘子 하나가 朴朴의 修道處를 찾아와 하룻 밤 재워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였다. 그러나 朴朴스님은 “蘭若(精舍)는 깨끗해야 하므로 너같은 여자가 올 곳이 아니니 여기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와 같이 娘子의 寄宿을 거절하여 쫓아버린 朴朴은 혼자 속으로 “그 娘子가 南庵(천주 努昉夫得의 修道處)으로 갔을 것이므로 夫得이 오늘 밤 반드시 染戒하였을 것이니 가서 비웃어주자.” 하고는 夫得의 修道處로 가 보았다. 그러자 夫得스님은 蓮華臺에 앉아 彌勒尊像이 되어 그 몸은 檀金색으로 光明을 발하고 있었다. 이에 놀란 朴朴이 머리를 쪼아려 질하고는 “어떻게 해서 이 같이 成佛하였으며, 전날의 우정을 봐서라도 함께 成道하도록 이끌어달라.”고 간청하니, 彌勒佛이 된 夫得은 그 娘子가 觀音菩薩이었고 觀音의 지시에 따라 浴槽에 몸을 씻고는 부처(佛)가 되었다는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는 “아직도 그 浴槽에 내가 成佛한 물이 남아있으니 목욕하라.”고 하였다. 과연 그 물에 목욕하니 朴朴도 無量壽(阿彌陀)佛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尊像이 마주 대하고 앉았으므로 山下의 村民이 다투어 와서 瞻仰하니 二聖이 法要를 說하고는 全身이 구름을 타고 가버렸으며, 그 뒤 天寶 14年(乙未·755)에 景德王이 이 소문을 듣고 그 곳에 大伽藍을 짓게하여 廣德 2年 즉 景德王 23년(764)에 完成하니 이 절이 白月山 南寺였다. 이 절의 金堂에 彌勒佛 塑像을 모시

3) 遺事 卷2, 文虎王 法敏.

‘仁問在獄時 國人爲勒寺名仁容寺 開設觀音道場 及仁問來還 死於海上 改爲彌陀道場 至今猶存.’

4) 三國史記(新羅本紀8, 孝昭王 3年 條 및 列傳4 金仁問 條.)에는 仁問이 延載元年 즉 孝昭王 3年(694) 4月 29日에 66세로 唐京에서 죽었다고 있다. 歸國도중 海上에서 죽었다고 해도 新羅에 와서 죽은 것은 아니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으며, 그가 죽자 그를 위해서 彌陀道場으로 삼은 것이므로 결국 仁容寺의 이 彌陀道場은 孝昭王 3年(694)에 시작한 것이 된다.

5) 遺事 卷3 塔像4 南白月二聖 努昉夫得 坦坦朴朴.

고 講堂에는 彌陀佛의 塑像을 모셨는데, 이 彌陀像에는 斑駁의 흔적이 있었으니 이것은 朴朴이 浴槽에 목욕할 때 물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부처는 되었으나 그 몸에 얼룩이 졌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彌陀像을 모신 이 講堂에는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額하였다는 것이다.⁶⁾

(4) 甘山寺의 彌陀像

彌陀佛火光後記⁷⁾에는, 重阿唵 金志全이 國主大王과 伊唵 愷元·亡考(父) 仁章一吉千·亡妣(母)·亡弟 小舍 梁誠과 沙門 玄度·亡妻 古路里·亡妹 古巴里 및 妻 阿好리 등을 위하여 甘山의 莊田에다 伽藍을 세우고, 이에 石彌陀 一軀를 造成하여 亡父 仁章一吉千을 받들었다고 있다.⁸⁾

(5) 布川山 5比丘의 西往

景德王代(742~765)에, 歎良州의 東北 20리쯤에 있는 布川山의 石窟 奇秀한 곳에 名氏 未詳의 다섯 比丘가 寓居하여 彌陀를 念하였다. 西方往生을 求한지 幾10년에 홀연히 西方으로부터 聖衆이 來迎하였으며, 이에 다섯 比丘는 各各 蓮華臺에 앉아 公중으로 떠서 서쪽으로 갔다. 그들이 通度寺 門밖에 留連하고 天樂을 間奏하니 寺僧들이 나와 봄으로, 다섯 比丘는 無常苦空의 理致를 說하고는 遺骸를 벗어버리고 大光明을 놓으면서 서쪽을 향하여 갔다는 것이다.⁹⁾

(6) 郁面婢의 念佛西昇

景德王代 康州에 善士 數10人이 西方(往生)에 뜻을 두고 彌陀寺를 세워 萬日念佛契를 맺었었다. 그 때 阿干 貴珍이란 사람의 집에 郁面이라는 婢가 있었는데 主人을 따라 절로 가서 마당가운데 서서 念佛을 따라 하였으므로, 그 주인이 종의 신분으로 일은 하지 않고 절에 와서 念佛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일 저녁 2碩의 穀物을 쟁게 하였다. 이에 婢 郁面은 2碩의 곡식을 다 쟁어놓고 일른 절로 가서 念佛하였는데, 하루 저녁도 게을리함이 없었다. 오�히려 마당에다 長檝을 세우고 거기에 兩掌을 꿰매어 올려서 합장을 하고 조급도 쉬지 않고 힘껏 念佛하였다. 그 때 하늘에서 “郁面 娘은 法堂으로 들어가서 念佛하라.”는 소리가 公중에서 들렸으므로 寺衆들이 이 소리를 듣고 郁面을 뵈해서 入堂하여 대중들과 함께 精進하게 하였다. 그 뒤 얼마 안가서 西쪽으로부터 天樂聲이 들려오자 郁面은 몸이 솟구쳐 올라 屋樑을 뚫고 나와 서쪽으로 가다가 郊外에 이르러 遺骸를 버리고 眞身을 나투어 蓮臺에 앉아서 大光明을 놓으면서

6) 다음 章에서 考察할 彌勒思想과 觀音思想에서도 言及될 이 白月山의 二聖成道說話에 대해서는 이미 拙考 ‘新羅 白月山 二聖說話의 研究’(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p.33~65)에서 詳考한 바가 있다.

7) 遺事 塔像4, 南月山(亦名 甘山寺).

8) 朝鮮金石總覽 上(p.35~36)에 收錄된 ‘甘山寺 阿彌陀如來造像記’에 의하면, 이 글은 開元 7年 己未 즉 聖德王 18年(719)에 撰하였으며 金志全이 이듬해 庚申年(720) 4月 22日에 長逝하였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彌陀像은 聖德王 19年 庚申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본다. 遺事에 있는 이 ‘彌陀佛火光後記’의 글은 이 造像記를 抄錄한 것이다.

9) 遺事 卷5 遊隱8, 布川山 五比丘 景德王代.

천천히 갔으며 天樂소리가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堂이 高麗(撰者 一然) 때까지 있었는데 높고 나간 구멍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¹⁰⁾

7) 鑿藏寺 彌陀像

元聖王의 父 大阿干 孝讓(明德大王)이 그 叔父(波珍喚)를 追崇하기 위하여 鑿藏寺를 세웠는데, 그 절의 윗쪽에 彌陀古殿이 있고 거기에 奉安된 彌陀像은 제39대 昭聖(成)王(799~800)을 위하여 그 妃인 桂花王后가 造成한 것이라고 한다. 즉 桂花王后는 王이 먼저 죽으매 심히 哀戚하여 泣血棘心하다가 西方에 彌陀大聖이 있어서 至誠歸仰하던 곧 善敎來迎한다는 말을 듣고, 王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名匠으로 하여금 彌陀像一軀를 造成케 하고 神衆像도 만들어 함께 安置하였다는 것이다.¹¹⁾

8) 念佛師

慶州 南山의 동쪽 기슭에 避里村이 있고 이 마을에 避里寺가 있었다. 이 절에는 名氏를 밝히지 않는 한 異僧이 있어서 항상 彌陀를 念하였다. 그가 念佛하는 음성이 城中의 360坊 17萬戶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그 소리가 높고 낮음이 없이 琅琅하게 한결같았다. 그래서 모두 존경하여 그를 念佛師라고 이름하였으며, 그가 죽자 泥塑像을 만들어 敏藏寺에 安置하고 그가 살던 避里寺는 念佛寺라고 改名하였다는 것이다.¹²⁾

이상에서 遺事所傳의 彌陀관계 資料들을 총망라하여 그 대략을 옮겨보았다.¹³⁾ 이 資料들에 의해서 우리는 新羅에서의 彌陀信仰에 대한 자취를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信仰의 史實들을 통하여 新羅의 彌陀思想을 考察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彌陀 즉 阿彌陀佛에 대한 것을 잠시 알아 본 후에 앞의 彌陀관계 史實들을 통한 新羅의 彌陀信仰의 思想性을 究明해 보려고 한다.

2. 阿彌陀佛과 關係經典(概要)

앞에서 옮겨 본 資料들을 중심으로 하여 新羅代의 彌陀信仰思想을 고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信仰思想의 根本主體가 되는 阿彌陀佛에 관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0) 遺事 卷5 感通7, ‘郁而婢 念佛西界’條의 鄉傳 引用 부분.

또 同條에서는 이 밖에도 僧傳(海東高僧傳일 것임)에 收錄되어 있는 郁而婢의 念佛西界에 관한 이야기를 引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前者(鄉傳)와는 좀 다르다. 여기서는 鄉傳의 것만을 취하여 옮겨 보았다.

11) 遺事 卷3 塔像4, 鑿藏寺 彌陀殿.

12) 同 卷5 避隱8, 念佛師.

이 念佛師는 年代未詳이기 때문에 맨 뒤에다 옮긴 것이다.

13) 以上에서 摘出した 事例 외에도, 感通7 月明師 兜率歌條의 祭亡妹歌 중에 ‘……彌陀利良逢乎……(彌陀國土에서 만나자……)’라는 句節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 歌詞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信實史實로는 引擧할 수가 없었으며, 또 避隱8 包山二聖條에는 ‘有釋成覺 始來住寺 敝萬日道場 精勤五十餘年’이라 있으나, 이는 高麗代의 일이므로 新羅信仰事實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阿彌陀佛 및 그 淨土信仰의 所依가 되는 關係經典들에 관해서 잠시 그 대강을 살펴 보기로 하는 것이다.

(1) 阿彌陀佛

阿彌陀佛(amita Buddha)은 意譯하여 無量壽佛(如來)이라고 하는데, 보통 彌陀佛이라 略稱한다. 이 彌陀佛은 十劫 이전에 成佛하고 현재 西方極樂世界에서 大衆을 위하여 說法하고 있다는 부처이다.

過去 久遠劫에 錠光如來가 出世하고 이어서 光遠如來 등의 52佛이 차례로 出世한 다음에 世自在王如來가 세상에 출현하였을 때에, 한 國王이 있어서 世自在王佛의 說法을 듣고 마음이 매우 기뻐 無上の 菩提心を 發하여 王位를 버리고 沙門이 되어 이름을 法藏이라 하였다. 法藏比丘는 世自在王如來의 처소에 나아가 偈頌으로서 如來를 讚歎하고 스스로 淨佛國土의 法을 修行하려고 그 뜻한 바를 말씀드렸다. 이에 世自在王佛은 곧 120億의 諸佛國土에 대한 天·人의 善·惡과 國土의 眞·妙를 說하고 또 그 心願에 應하여 諸佛國土를 하나 하나 나투어 보였다. 이로부터 法藏比丘는 無上殊勝의 願을 發하여 5劫동안에 思惟하고 그들의 諸國土에 대해서 選擇한 다음에, 다시 如來의 앞으로 나아가 48의 大願을 세워 이 大願이 成就안되면 成佛하지 않겠다고 誓願하였다. 그리하여 兆載劫의 동안에 힘써 功을 쌓아 드디어 正覺을 이루어 阿彌陀佛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阿彌陀佛은 48大願을 모두 成就하여서 成佛하였기 때문에 그 부처의 나라인 極樂世界(安樂·安養國·無量壽佛利)에는 苦가 없고 樂만이 있어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뜻대로 되며, 또 그 나라는 七寶와 八功德水와 蓮華와 天樂 등의 가지가지로 莊嚴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極樂世界에 가서 나기를 원하는 衆生은 阿彌陀佛의 名號를 듣고 信心歡喜하여 一念이라도 至心廻向하면 곧 往生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때 西方(極樂)에서 聖衆이 와서 그 사람을 맞이하여 간다는 것이다. 그 世界에 살게 되면 다시는 轉生하지 않으므로 生死의 輪廻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阿彌陀佛의 信仰은 古來로 매우 盛하였으며 現存의 大乘經論중에서 彌陀와 極樂을 散說한 것이 무려 200餘部나 된다고 한다.¹⁴⁾ 그 중에서도 직접 阿彌陀佛에 관하여 說하고 있는 經으로는 彌陀信仰의 所依經으로서 淨土三部經이라고도 하는 無量壽經과 阿彌陀經 그리고 觀無量壽經을 대표로 들 수가 있다.

(2) 所依經典

① 佛說無量壽經 2卷(曹魏 天竺三藏 康僧鎧 譯)¹⁵⁾

이 經은 大寶積經 無量壽如來會 第五의 異譯이며,¹⁶⁾ 大無量壽經이라고도 하는데 阿

14) 荆溪 湛然的 '止觀輔行傳弘決' 卷 2에는 '諸經所讚多在彌陀'라고 있다.

15) 大正藏 12卷. p. 265~279.

16) 이 無量壽經의 異譯은 12種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 7種은 이미 없어지고 現存하는 것으로는, 後漢 때의 支婁迦讖 譯인 '佛說無量清淨平等覺經'(4卷)과 이 '佛說無量壽經'과 吳나라 때의 支謙 譯인 '佛說阿彌陀

彌陀經 등에 대하여 大經 또는 雙卷(觀)經이라고도 한다.

이 無量壽經은 48大願을 成就한 無量壽佛의 因源 果海와 衆生이 念佛하여 極樂國에 往生을 하게 되는 因果를 說한 經이다. 즉, 釋尊께서 耆闍崛山中에 계실 때 阿難의 請問에 대한 답으로 먼저 如來淨土의 因果를 說하여, 過去 世自在王如來의 在世時에 一國王으로 如來의 說法을 듣고 出家한 法藏比丘가 48種의 大願을 세운뒤 成佛하여 阿彌陀佛이 되고 西方淨土(極樂)를 성취시켜 現在 微妙의 法을 說하여 無量衆生을 佛의 正道에 安立시킨다는 것을 說하고 다음 그 淨土중에는 諸邪聚와 不定聚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往生하는 자는 모두가 正定の 聚에 住하며, 모든 衆生이 彌陀佛의 名號를 듣고 信心歡喜하여 一念이라도 至心廻向하여 그 나라에 나기를 원하면 곧 往生하게 되어 不退轉에 住하며, 그 나라에 往生하려고 원하는 자에게 上中下의 三輩가 있어서 자기 往生을 하게 된다는 등 衆生의 往生因果를 說하여, 그 國土에 往生할 수 있는 因緣과 往生한 結果의 狀況을 詳說하여 있다.

② 佛說阿彌陀經 一卷(姚秦 龜茲國三藏 鳩摩羅什 譯)¹⁷⁾

이 經은 無量壽經에 대하여 小無量壽經, 支謙 譯의 阿彌陀經에 대하여 小阿彌陀經이라 하며, 흔히 小經이라고도 한다. 이와 同義의 經에 玄奘 譯의 '稱讚淨土佛攝受經'(一卷)이 있다.

이 阿彌陀經은 佛(釋尊)이 祇樹給孤獨園에 계실 때 舍利佛에게 自說하여 西方으로 10萬億佛土를 지나면 極樂世界가 있고 그 나라에 阿彌陀佛이 說法하고 있으며, 그곳 衆生은 無苦로 諸樂만 받으며 그 國土에는 七寶와 八功德水와 蓮花 및 天樂 등으로 莊嚴되어 있고, 彌陀佛이 無量한 光明과 壽命으로서 小善根의 因緣福德이 있는 衆生을 往生케 한다고 說한 것이다.

③ 佛說觀無量壽經 一卷(劉宋 曇良耶舍 譯)¹⁸⁾

이 經은 無量壽觀經 또는 十六觀經·觀經이라고도 한다.

이 觀無量壽經은 王舍城 王宮內에서 韋提希夫人을 위하여 淨土往生法을 說한 經이다. 즉 佛이 耆闍崛山中에 계실 때 阿闍世太子는 提婆達多의 教唆에 따라 父王인 頻婆娑羅王과 母后 韋提希夫人을 幽閉하였는데, 그 때 佛은 阿難과 目蓮을 데리고 韋提希부인의 처소에 몸을 나타내어 부인의 哀願에 應해서 西方 極樂淨土를 示現하고, 또 往生法으로서 三福과 十六觀을 說하며 부인과 侍女들이 無生法忍을 얻어 無上道心을 發

三耶三佛薩佛檀過度人道經'(2卷)과 唐代 善提流志 譯의 '大寶積經 無量壽如來會'(2卷) 및 宋代的 法賢 譯인 '佛說無量壽莊嚴經'(3卷)의 5經이 있다. 그리므로 無量壽經의 異譯에 五存 七缺이 있다고 한다. 이 五存중에서 '無量清淨平等覺經'·'無量壽經'·'阿彌陀過度人道經'·'無量壽莊嚴經'의 4經을 校輯(宋國 學進士 龍舒 王日休)하여 따로 하나의 經으로 단든 것이 '佛說大阿彌陀經'(2卷)이다.

17) 大正藏 12卷 p. 346~348.

18) 上同 p. 340~346.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三福이라 함은, 三世諸佛의 淨業正因으로서 世福·戒福·行福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十六觀이란, 第1 日想觀, 第2 水想觀, 第3 地想觀, 第4 寶樹觀, 第5 寶池觀, 第6 寶樓閣觀, 第7 華座觀, 第8 像觀, 第9 阿彌陀佛眞身觀, 第10 觀世音菩薩觀, 第11 大勢至菩薩觀, 第12 普想觀, 第13 雜想觀, 第14 上輩生想觀, 第15 中輩生想觀, 第16 下輩生想觀이다. 이 16觀중 앞의 13觀은 息慮凝心の 위에 大小乘의 眞理 또는 彌陀淨土의 正依二報莊嚴을 대상으로 하여 觀想하는 것으로 定善이라 하며, 뒤의 3觀은 散亂心으로 모든 感覺知覺을 發하여 此土의 事物에 접촉하여서 廢惡修善하는 것으로 散善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이 經은 彌陀佛 및 觀音 勢至 兩菩薩과 아울러 極樂淨土의 莊嚴을 觀察하는 法을 說한 것인데, 16觀중에는 특히 제9 阿彌陀佛眞身觀을 가장 중요한 觀行으로 하며 經의 題名도 여기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상에서 彌陀를 說한 중심 經典인 三部經에 대하여 극히 간략하게나마 概觀하였는데 이 밖에 彌陀佛의 父母와 아들 그리고 弟子들에 관하여 特記한 經¹⁹⁾도 있다.

이들 彌陀關係 經典(특히 三部經)에 관한 新羅 碩德들의 著述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彌陀(淨土)에 대한 研究가 新羅에 있어서 크게 성행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그 書名을 전하고 있는 新羅의 彌陀관계 著述은 대략 다음과 같다.

慈藏의 阿彌陀經義記 一卷²⁰⁾ 阿彌陀經疏 一卷.²¹⁾

圓測²²⁾의 阿彌陀經疏 一卷²³⁾ 無量壽經疏 三卷.²⁴⁾

元曉의 阿彌陀經疏 一卷²⁵⁾ 同經通叢疏 二卷²⁶⁾ 無量壽經疏 一卷²⁷⁾ 無量壽經宗要 一卷.²⁸⁾

19) 阿彌陀鼓音聲王陀羅尼經 1卷(大正藏 12卷 p.352~353)

이 經엔 彌陀佛의 父名은 月上轉輪聖王, 母名은 殊勝妙顏, 子는 月明이며, 奉事弟子는 無垢稱, 智慧弟子는 賢光 神尼精勤弟子는 大化라고 있다.

20) 日本 興隆集, 佛典疏沙目錄 卷下(大日本佛敎全書 第1冊 p.118·上).

日本 長西撰, 淨土依憑經論章疏目錄(上同 p.145·上).

21) 日本 永超撰,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1·上).

22) 圓測은 일찌기 入唐하여 生涯를 唐에서 마쳤기 때문에 嚴格히 말해서 그의 著述은 新羅에서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門人들이 歸國하여 新羅에서 活動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影響이 적지않게 新羅에 미쳤으리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본다.

23)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1·上).

淨土依憑經論章疏目錄(大日本佛敎全書 第1冊 p.145·下).

24) 日本 文雄輯錄, 徵定增補, 蓮門類聚經籍錄 卷上(大日本佛敎全書 第1冊 p.157·上).

25) 新編諸宗敎藏總錄(高麗 大覺國師 編)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2·上).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上同, p.1151·上).

日本 高山寺聖敎目錄 卷上(昭和法寶總目錄 第3卷 p.915·下).

佛典疏沙目錄下(大日本佛敎全書 第1冊 p.118·上) 여기서는 義疏로 되어 있다.

明의 知旭撰, 闍藏和津 35에 '元曉述 佛說阿彌陀經疏 七紙'라고 있다.

26) 蓮門類聚經籍錄 卷上(大日本佛敎全書 第1冊 p.160·上).

27) 新編諸宗敎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1·下).

28)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0·下). '或兩卷'이라 註하여 있다.

高山寺聖敎目錄 上(昭和法寶總目錄 第3卷 p.915·下).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 1888 天平20年記 下段(東洋文庫論叢 第10卷 附錄 p.98).

- 無量壽經私記 一卷.²⁹⁾ 遊心安樂道 一卷.³⁰⁾
- 義湘의 阿彌陀經義記 一卷.³¹⁾
- 憬興의 阿彌陀經略記 一卷.³²⁾ 無量壽經連義述文贊 三卷.³³⁾ 無量壽經疏三卷.³⁴⁾ 觀無量壽經疏 二卷.³⁵⁾
- 義寂의 無量壽經疏 三卷.³⁶⁾ 無量壽經述義記 三卷.³⁷⁾ 觀無量壽經綱要 一卷.³⁸⁾ 觀無量壽經疏 一卷.³⁹⁾
- 道證의 西方極樂要讚 一卷.⁴⁰⁾
- 太賢의 阿彌陀經古迹記 一卷.⁴¹⁾ 無量壽經古迹記 一卷.⁴²⁾ 觀無量壽經古迹記 一卷.⁴³⁾
- 稱讚淨土經古迹記 一卷.⁴⁴⁾ 淨土總料簡 一卷.⁴⁵⁾
- 法位의 無量壽經疏 二卷.⁴⁶⁾

- 29) 淨土依憑經論章疏目錄(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44·下).
- 30) 高山寺聖教目錄 上(昭和法寶總目錄 第3卷 p.915·下).
扶桑藏外現存目錄(昭和法寶總目錄 第2卷 p.563·下).
- 31)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2·上).
蓮門類聚經籍錄(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60·中).
- 32)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1·上).
蓮門類聚經籍錄(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60·下).
- 33)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0·下).
日本 謙顯集, 增補諸宗章疏錄 法相宗 經疏部(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77·中). 以上 2錄에서는 단지 本經의 述贊으로 되어 있다.
蓮門類聚經籍錄 卷上(上同 p.156·下).
佛典疏沙目錄 卷下(上同 p.117·中).
- 34) 注進法相宗章疏(大正藏 第55卷 p.1141·中).
- 35) 蓮門類聚經籍錄(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58·中).
佛典疏沙目錄 卷下(上同 p.117·下).
- 36)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0·下)
法相宗章疏(上同, p.1139·上)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 1891. 天平20年記 및 同 1892. 勝寶4年記.
- 37) 扶桑藏外現存目錄(昭和法寶總目錄 第2卷 p.566·下).
高山寺聖教目錄 上(上同 第3卷 p.915·下).
淨土依憑經論章疏目錄(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44·下).
- 38)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1·下).
扶桑藏外現存目錄(昭和法寶總目錄 第2卷 p.566·下).
蓮門類聚經籍錄(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58·中).
- 39) 佛典疏沙目錄 下(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17·下).
- 40) 淨土依憑經論章疏目錄(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49·上).
- 41)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2·上)
- 42) 上同(上同 p.1171·下).
增補諸宗章疏錄 法相宗 經疏部(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77·中).
- 43)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1·下).
佛典疏沙目錄 下(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17·下).
- 44)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2·上).
佛典疏沙目錄 下(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18·中).
- 45) 上同(上同 p.118·中).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2·上). '稱讚淨土經古迹記' 題下에 附記되어 있다.
- 46)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0·下).
淨土依憑經論章疏目錄 釋經錄 第3(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44·下).
高山寺聖教目錄 上(昭和法寶總目錄 第3卷 p.915·下).

玄一의 無量壽經記(疏) 二卷⁴⁷⁾ 觀無量壽經記 一卷⁴⁸⁾ 阿彌陀經疏 一卷⁴⁹⁾ 隨願往生經記 一卷.⁵⁰⁾ 道(遁)倫의 阿彌陀經疏 一卷⁵¹⁾ 등.

이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으로는 元曉의 無量壽經宗要,⁵²⁾ 阿彌陀經疏,⁵³⁾ 遊心安樂道⁵⁴⁾와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讚⁵⁵⁾ 및 玄一의 無量壽經記⁵⁶⁾ 一部 등이다. 이 밖에 法位의 無量壽經疏 2卷과 義寂의 無量壽經述義記 3卷은 이미 日本學者(惠谷隆戒)에 의하여 復元된 바가 있다.⁵⁷⁾

3. 當時 彌陀信仰思想의 特性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經典所說의 阿彌陀佛과 그 西方淨土往生에 대한 新羅的인 信仰의 자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의 첫머리에서 이미 摘出해 보았던 諸史實의 資料들이다. 그 信仰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서와 같이 新羅 彌陀信仰의 특징과 그 思想的 特殊性을 考察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1) 各傳을 통해 본 信仰의 特徵

① 內容上的 특징

앞의 信仰史實에서 옮겨 본 (1) ‘廣德 嚴莊의 西往’에서 우리는 彌陀信仰의 절실한 면을 볼 수가 있다.

두 사람중에서 먼저 往生하는 자는 누구든지 서로 알리고 가도록 하자고 만날 때마다 약속한 그들의 友情과 西方淨土에 대한 信仰은 당시의 彌陀信仰이 그처럼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妻子를 거느리고 生業을 경영하면서 極樂往生

47)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衆經部(大正藏 第55卷 p.1150·下). 여기에는 3卷으로 보인다.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 1895 天平20年記 및 同錄 1896 勝寶5年記(東洋文庫論叢 第10 附錄 p.98)에는 2卷으로 보임.

扶桑藏外現存目錄(昭和法寶總目錄 第2卷 p.566·下)에 ‘雙觀經疏 一卷’이라 있는데, 아마 現存本 上卷만 편을 가리킨 것 같다.

48) 蓮門類聚經籍錄 卷上(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58·中).

49)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 p.1172·上).

東域傳燈目錄 弘經錄 1, 衆經部(同上 p.1151·上).

淨土依憑經論章疏目錄 釋經錄 第3(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p.145·下). 여기에는 2卷 38丁으로 되어 있다.

50)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 2225 天平20年記 및 2226 勝寶4年記(東洋文庫論叢 第10 附錄 p.115).

51) 新編諸宗教藏總錄 卷第1(大正藏 第55卷 p.1172·上).

52) 日本 大正大學에 寬永8年刊本이 있으며, 現在 大日本續藏經 第32套 第3冊과 大正藏經 第37卷, 淨土宗全書 第5卷 및 元曉大師全集 第2冊에 收錄되어 있다.

53) 大日本校訂大藏經 呂快 第1冊(大日本校訂藏經 第34套 第10冊) 大正藏 第37卷, 元曉大師全集 第2冊을 收錄.

54) 大日本續藏經 第二編 第12套 第4冊, 大正藏 第47卷, 元曉大師全集 第10冊 등 收錄.

55) 大日本續藏經 第32套 第3冊 및 大正藏 第37卷에 收錄.

56) 日本의 大正大學, 京都大學, 大谷大學 등에 上卷의 古鈔本이 있으며, 大日本續藏經 第32套 第2冊에 上卷이 들어 있다.

57) 無量壽經述義記復元(佛敎大學研究紀要 通卷 第35號, 1958年).

無量壽經疏復元(佛敎大學研究紀要 第40號 1961年).

을 希求하였다는 것에서 生活化된 彌陀淨土信仰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도 하겠다. 특히 廣德의 경우는 妻가 있는 沙門이면서 밤마다 端身正坐하여 彌陀佛을 念하고 혹은 十六觀行을 닦아 一意往生을 願求하였으며, 嚴莊은 廣德처럼 生活속에서의 履行이 어려웠기 때문에 妻를 버리고 元曉法師에게로 가서 津要를 懇求하여 그 가르침에 의한 觀法을 履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붙여져 있는 廣德의 願往生歌는 두 손 모아 정중히 합장하고 한 마음으로 彌陀佛에게 往生을 願求하는 절실하고도 티없는 淨土修行者의 眞面目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廣德·嚴莊의 信仰說話를 통하여 당시 文武王代에 벌써 이처럼 彌陀信仰이 新羅人의 生活에 깊이 접근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음 (2) ‘仁容寺의 彌陀道場’에서는 仁容寺의 創建과 道場設置의 緣起를 보이고 있다. 金仁問의 生還을 위하여 처음에 觀音道場을 開設하였으나 그가 죽자 彌陀道場으로 고쳤는데, 高麗代에 까지 그 彌陀道場이 존속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死者의 極樂往生을 祈願하는 信仰形態를 보게 된다 하겠다.

그리고 (3) ‘白月山の 彌陀現身成佛’에서는 이 땅(新羅)의 彌陀修行者가 스스로 阿彌陀如來로 成佛하였다고 있다. 西方淨土往生이 아니고 新羅國土에서 彌陀佛로 現身成道했다는 것이니, 이는 新羅佛國土思想과도 깊은 關聯性을 가진 說話이기는 하지만 이야말로 彌陀信仰의 新羅의 特徵을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彌陀佛로 現身成道하였다는 沙門 坦坦朴朴은 深谷으로 들어가 3年동안 彌陀佛을 禮念精修하기 전에는 역시 廣德의 경우처럼 寺庵에서 妻子를 거느리고 產業을 經營하면서 修道生活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廣德과는 달리 妻子가 있는 寺庵을 버리고 더욱 깊숙한 靜處를 찾아가서 修行하였으며,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는 女人을 不淨하다는 이유로 암자에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한 修道姿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女人을 재워준 이웃 암자의 道伴 夫得이 成道하여 彌陀佛이 되자 그의 도움을 얻어서 彌陀佛로 되었다는 것이다.

또 (4) ‘甘山寺의 彌陀像’은 死者(亡父)를 위한 造成奉安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이렇다할 만한 信仰的인 특징은 볼 수가 없다고 하겠다.

또 (5) ‘布川山 5比丘의 西往’에서는 함께 彌陀佛을 念하여 西方을 願求하던 다섯 比丘가 다같이 西方聖衆의 來迎을 받아 往生하였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여기서는 그 5比丘들이 蓮臺에 앉아 公중에 떠서 서쪽으로 가다가 도중에 머물어 說法을 한 뒤에 遺骸를 벗어버리고 大光明을 놓으면서 갔다는 것이다. 西往하면서 遺骸를 버리고 眞身만이 갔다는 것은 다른 說話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가다가 도중에 머물어 說法을 하고 갔다는 것은 특수한 事例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6) ‘郁面婢의 念佛西昇’에서도 念佛하던 한 婢女가 몸을 솟구쳐 屋樑을 뚫고 나와 公중에 떠서 가다가 遺骸를 버리고 眞身이 蓮臺에 앉아 大光明을 놓으면서 서

쪽으로 갔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西往者가 沙門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낱의 婢女라는 점이 特異하다 하겠다. 더구나 法堂에서 格式에 맞는 行儀대로 念佛을 한 上典들 틈에서 눈총을 맞아가며 法堂에도 못들어 가고 마당에 서서 念佛하였던 婢女가 往生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善士(佛敎信徒) 數10人이 西方往生을 願求하여 彌陀寺⁵⁸⁾를 세우고 萬日契를 만들어 同修念佛하였다는 사실이다. 僧侶가 아닌 俗士들이 西方往生을 同修코자 절을 세웠다는 것이나 또 萬日契라는 念佛法會를 조직해서 함께 念佛하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당시(景德王代) 彌陀信仰의 大衆的인 중요한 一面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萬日念佛契는 朝鮮末期에 크게 성행하였던 萬日會나 念佛契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특히 당시 新羅의 彌陀信仰에 있어서 念佛信行의 大衆的인 한 形態였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重要視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다음 (7) ‘鑿藏寺의 彌陀像’은 앞의 甘山寺 石彌陀像과 마찬가지로 死者(昭聖王)의 冥福을 위하여 造成奉安한 것이다.

끝으로 (8)의 ‘念佛師’에서는 한 사람의 念佛소리가 온 京師城안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있다. 擴聲器가 없는 당시에 있어서 360坊 17萬戶에 높고 낮음없이 낭랑하게 똑같은 목소리로 들렸다는 것이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說話의 事實로 본다면 그 解釋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彌陀信仰이 매우 盛한 당시 家家戶戶에 念佛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람마다 그 마음에 彌陀佛號가 떠나지 않았다는 信仰相을 反映해 보인 것으로 풀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② 時代的 특징

이상에서 각 史實이 전하고 있는 바의 信仰의 특징을 대충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時代的인 특징도 發見할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遺事에 傳하고 있는 이 彌陀信仰의 史實들은 모두가 같은 時代範疇에 속하여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그 年代를 알 수가 없는 念佛師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모두 新羅統一期에 있었던 일들이다. 특히 40代 哀莊王(800~809·昭聖王 死後) 때에 이룩되었다는 鑿藏寺의 彌陀像을 제외한 諸史實이 전부 30代 文武王(661~681)에서 35代 景德王(742~765)에 이르기까지의 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鑿藏寺의 彌陀像은 新羅의 彌陀信仰과 그 思想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는 할 수가 없는 단순한 造像事實을 전하고

58) 同 ‘都面婢念佛西昇’條의 僧傳을 按하였다는 쪽의 기록에서는 이 彌陀寺를 惠宿法師가 創建하였다고 있다. 이 때문에 金東旭教授는 그 ‘新羅淨土思想의 展開와 願往生歌’(中央大學校論文集 第2輯)에서 이 彌陀寺를 眞平王 때의 神僧 惠宿의 所居寺였다는 惠宿寺와 同一寺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큰 錯誤라고 할 수 있으니, 惠宿寺는 安康縣의 북쪽에 있었던 절이며, 彌陀寺는 善士가 세웠던 惠宿師가 세웠던 康州(晉州)에 있었던 절이었으므로 도저히 同一寺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惠宿도 眞平王代의 惠宿과 同一人인지의 如否도 문제이지만 惠宿寺와 彌陀寺는 서로 관련지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彌陀信仰의 新羅의 特徵이나 思想性을 전하고 있는 史實資料들은 모두가 統一全盛期인 文武王代에서 景德王代の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新羅의 彌陀信仰에 대한 史實은 주로 文武王代에서 景德王代에 이르기까지의 대략 100年사이에 해당되는 統一全盛期の 時代範疇에 속하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主題가 되는 新羅의 彌陀信仰思想이란 실제에 있어서는 이 時期 즉 文武王에서 景德王代에 이르는 統一全盛期の 新羅代에 있었던 彌陀信仰에 대한 思想的인 考察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時代를 背景으로 하고 있는 彌陀信仰은 그 信仰說話의 內容에서도 時代的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文武王代の 廣德은 西往함에 있어서 서로 알리기로 약속한 바도 있었긴 하지만 친구 嚴莊에게 알리고 갔는데, 구름밖에 天樂聲이 들렸으며 光明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시체는 그가 거처하던 방안에 있었으므로 이튿날 장사지내 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西往하게 되는 廣德의 말소리만 들렸고 또 天樂聲이 구름밖에 들리고 光明이 떨어졌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

그러나 景德王代的 布川山 5比丘와 郁面婢의 두 西往사실에서는, 聖衆 또는 天樂聲의 來迎을 받아 肉身이 空中으로 떠서 서쪽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몸둥이를 버리고 眞身이 蓮臺에 앉아 大光明을 놓으면서 西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廣德의 往生과 비교하여 매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경우에는 壽命이 다해서 몸은 시체가 되고 영혼만이 往生하면서 구름밖의 먼 天樂聲이라던지 光明이 땅에까지 떨어지는 등의 異瑞를 나투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5比丘와 郁面婢의 경우에는 죽은 뒤가 아닌 살아있는 肉身 그대로 西方(極樂世界)聖衆의 來迎을 받아 공중으로 해서 가다가 도중에 그 肉身을 버리고 眞身을 나투어 蓮臺에 앉아 大光明을 놓으면서 갔다는 것이니, 이는 앞의 경우처럼 異瑞를 나투는 정도로서는 도저히 비교가 안되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文武王代와 景德王代라는 時代的 差異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文武王代的 往生信仰보다는 景德王代的 往生信仰이 훨씬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아서 白月山의 彌陀現身成佛의 說話는 景德王代的 以前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5比丘와 郁面婢의 西往보다 뒤의 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 하면 이 땅에서 現身으로 彌陀佛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肉身으로 가다가 眞身으로 나투어 西往하였다는 5比丘와 郁面婢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며 補完的인 意味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의 史實(資料) 摘出에 있어서는 時代順으로 한다면 白月山의 現身成佛 條를 (3)으로 하여 5比丘와 郁面婢 條보다 앞에 두었다. 그것은 朴朴師가 成道한 것이 聖德

王 8年 己酉(709)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成佛) 소문을 景德王이 듣고 거기에 大伽藍을 짓게 하여 白月山 南寺를 完成한 것이 景德王 23年(764)이었다는 것이니, 現身彌陀成佛의 說話는 이 景德王代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라 본다. 이 說話는 白月山 南寺의 創建緣起說話이기도 하므로 이 절이 이룩될 무렵해서 생겨졌으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景德王 23년 즈음에는 이 說話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는 景德王의 晩年이 된다. 그러므로 이 朴朴師의 現身成佛說話가 5比丘나 都面婢의 西往사실보다 늦게된 것으로 보아도 크게 모순은 안되리라고 여겨진다. 또 한 사람의 念佛소리가 온 城안 골고루 집집마다에 낭랑하게 들렸다는 念佛師의 이야기도 아마 이를 전후한 때가 아니었던가 싶다.

이상과 같이 보아 彌陀信仰說話가 처음 보이는 文武王代의 往生은 일종의 瑞相과 더불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景德王代에 이르러서는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똑똑히 보이는 그러한 往生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景德王의 後期에는 往生이 아닌 彌陀佛이 직접 現身成道하였다는 信仰에까지 이르렀으며, 또 집집마다 念佛소리가 끊이지 않고 마음마다 彌陀佛이 떠나지 않았다고 할만큼 彌陀信仰이 매우 성하였던 時代의인 특징들을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2) 新羅 彌陀思想의 特殊性

이상에서 우리는 新羅 彌陀信仰의 특징을 대충 보았다. 그와 같은 信仰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는 彌陀信仰의 史實들은 모두가 說話의인 史實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맨 앞에서 옮겨 본 史實資料들 중에서 (2) 仁容寺의 彌陀道場과 (4) 甘山寺 石彌陀 및 (7) 鑿藏寺 彌陀像 등 세가지의 事實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說話로 되어 있는 信仰史實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信仰의 특징을 전하고 있는 說話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彌陀思想의 新羅의 特殊性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라 본다.

① 現實의인 新羅爲主의 思想

廣德의 경우 자리짜고 신삼는 것을 業으로 삼고, 嚴莊의 경우에는 農事(大犢力耕)하면서 淨土를 願求하여 彌陀佛을 稱念하며 혹은 十六觀行 등으로 往生業을 지극히 닦았다는 것에서 彌陀信仰이 現實生活에 깊이 密接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布川山 5比丘의 경우 西方(極樂)聖衆의 來迎을 받아 서쪽으로 가면서 通度寺 門外에 留連하고 天樂을 間奏하여 寺僧들이 나와 봄에 그들에게 無常苦空의 道理를 說하고는 遺骸를 벗어버리고 서쪽을 향해 갔다는 것에서 新羅國土에 대한 강한 願望과 現實에 重點을 둔 思想의 특색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西方을 希求하여 往生을 하는 마당에서 곧바로 西方으로 가지 않고 連臺에 앉아 聖衆에게 翁위되어 공중에 떠가면서 도중에 머물러 이 땅의 大衆(寺僧)에게 說法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新羅人을 위하고 이 땅을 本位로 하는 新羅爲主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郁面婢도 공중으로 떠서 서쪽으로 가다가 郊外에 이르러 肉身을 버리고 眞身이 蓮臺에 앉아 大光明을 놓으면서 천천히 갔으며 天樂聲이 공중에 흠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직접 說法을 하였다고는 되어있지 않으나 放大光明하면서 天樂聲에 쌓여 천천히 갔다는 것에서 5比丘가 天樂을 間奏하여 說法을 하고 갔다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眞身으로 나투어 蓮臺에 앉아 大光明을 놓으면서 천천히 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그 稀有하고 不思議한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感化를 받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說法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天樂聲이 울려 퍼지고 西方淨土의 大光明이 이 땅과 新羅人의 마음을 비추이며, 往生의 참 모습을 사람마다 보게 하여 공중으로 떠가다가 肉身을 남겨 往生의 자취를 이 땅에다 길이 심어주었다고 볼 수가 있다. 西方往生은 現在의 生命이 끝남으로서 즉 죽은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그 영혼만이 가기 때문에 往生의 사실을 아무도 볼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와 같이 現身往生의 說話를 너무도 具體的으로 鮮明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新羅人의 創意的이며 生動力 넘치는 現實的 淨土往生思想을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것은 당시 統一全盛期 新羅의 全般的 佛教思想이 現實爲主로 新羅 중심의 本位的이었기 때문에 西方往生思想까지도 그와 같이 現實的이고 新羅中心的이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② 賤人往生의 善因善果思想

西方往生에 뜻을 둔 數10人의 善士가 절까지 지어 萬日을 期約하고 念佛精進을 닦았으나, 오히려 上典의 눈총을 받아가며 하루 저녁에 2碩의 곡식까지 썰어야 하는 고달픈 몸으로 없는 틈을 내어 절에 가서 念佛堂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 선채 念佛하였던 婢女가 現身騰空으로 往生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善因에는 반드시 善果가 따른다는 因果思想을 보게 된다. 가장 不利하고 不幸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惡條件을 무릅쓰고 一意專心 念佛하였기 때문에 賤婢의 몸이면서 그만이 홀로 往生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賤人往生의 思想은 또 당시의 統一期(특히 景德王代) 佛教가 一般 庶民大衆의 生活속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었던 時代背景에 相應된 現象이 아니었던가도 싶다. 貴族中心의 初期的 佛教가 차츰 大衆化되어 統一후에는 坊坊谷谷의 온 백성들이(가난한 거지나 더벅머리 개구쟁이들까지도) 모두 佛化에 젖었던⁵⁹⁾ 時代的 反影이 彌陀信仰에도

59) 新羅佛敎의 大衆生活化에 관하여서는 拙論 ‘新羅佛敎大衆化의 歷史와 그 思想研究’(佛敎學報 第6輯)에서 이미 愚考한 바가 있다.

나타났던 것 같다는 것이다.

③ 新羅彌陀 現身成佛思想

白月山 二聖成道 說話에서는 彌陀信仰이 彌勒信仰보다 下位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이 땅의 彌陀佛이 現身成道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新羅의 彌陀信仰은 끝내는 新羅國土에서 彌陀佛이 成佛했다는 思想을 낳기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成道說話에 보면 現身成道한 彌勒佛과 彌陀佛의 兩尊이 儼然히 相對하여 競來瞻仰하는 村民들에게 法要를 說하고는 全身이 구름에 싸여 갔다(躡雲而逝)고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布川山 5比丘가 各坐蓮臺하여 乘空而逝하다가 無常苦空之理를 說하고 向西而去하였다는 경우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른 보아 兩尊(彌勒佛·彌陀佛)도 구름을 타고 西方 또는 他國佛土로 가버린 것이라고 보기가 쉽다. 만약에 그들 특히 彌陀佛이 이 땅에서 成佛하였으면서도 이 땅에 있지 않고 西方淨土로 가버렸다면, 이것은 이 땅의 彌陀佛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여느 西方往生者と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現身成道한 彌陀佛은 분명히 이 땅 新羅에서 成佛한 新羅의 彌陀佛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5比丘나 郁面婢와 같은 그러한 西方往生者와는 전연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往生者의 경우에는 西方에서 天樂聲 및 聖衆이 來迎하므로써 乘空而逝하게 되며 도중에서 肉身을 버리고 眞身만이 蓮臺에 앉아 放大光明하면서 갔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彌陀佛(彌勒佛과 함께)은 說法을 하고 全身이 躡雲而逝하였다고는 되어 있으나 西方聖衆의 來迎이나 肉身을 버린 일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全身이라고 하는 것은 現身成佛의 佛身이기 때문에 따로 遺骸를 남기지 않은 佛身 그대로의 몸으로 구름을 타고 갔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往生者는 이 肉身 그대로는 西方淨土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現身乘空西往이라 하더라도 도중에서 肉身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理路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달리 西往者가 아닌 現身成道の 佛에게는 他方聖衆의 來迎도 遺身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躡雲而逝한 佛身은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만약 西方淨土로 갔다면 이미 10劫 이전에 成佛하여 그 곳의 主佛이 되어 있는 彌陀佛과 兩立이 되어 極樂에는 두 분의 彌陀佛이 있게 될 것이 아닌가. 또 그 밖의 他方佛土로 갔다 하더라도 역시 新羅의 彌陀佛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新羅에서는 그 자리에 大伽藍을 세워 講堂에다 彌陀像을 모시고 ‘現身成道無量壽殿’이라 하여 新羅 彌陀佛의 現身成道를 事實化시켰던 것이다. 그들이 彌陀塑像을 만들어서 까지 現身成佛한 新羅의 彌陀佛을 상징하고 있는 것에서도 新羅人들은 彌陀佛이 他方으로 갔다고는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躡雲而逝는 他方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고 佛身の 法身化를 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新羅人들은 現身成佛觀에 철저했기 때문에 法身化한 彌陀佛을 상징하여 彌陀佛의 塑像을 造成하고 ‘現身成道無量壽殿’에다 奉安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⁶⁰⁾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彌陀信仰思想을 三國遺事에 보이는 資料를 중심으로 하여 대강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新羅(주로 統一全盛期) 彌陀信仰의 특징과 그 思想的 特性을 대충 究明하여 본 셈이다.

新羅의 佛敎人들이 彌陀佛 및 그 淨土를 어떻게 信仰하였고 또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生活化的 現實的인 信仰이었으며 新羅 淨土實現의 思想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阿彌陀佛은 10劫 이전에 이미 成佛하여 此土로부터 10萬億佛土를 지난 西方에 있는 極樂淨土의 主佛로 現存하고 있다면서, 新羅人들은 現實生活속에서 彌陀를 信仰하고 現身 그대로 淨土에 往生한다고 믿었으며, 끝내는 이 땅에서 바로 新羅의 彌陀佛이 出現한다고 까지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彌陀佛 信仰思想의 展開에서 결과되어진 必然的인 歸着點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新羅의 彌陀信仰은 이 땅 新羅에서 彌陀佛이 成道한다는 新羅的 彌陀思想의 완성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10萬億佛土나 먼 極樂보다도 바로 이 땅에 佛國淨土를 實現하려는 新羅의 佛國土思想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60) 新羅의 彌陀信仰思想에 관해서 이미 拙考 ‘新羅 白月山二聖說話의 研究’(趙明基博士 華甲紀念 佛敎史學 論叢 p. 33~65)에서 조금 論及한 바가 있다.